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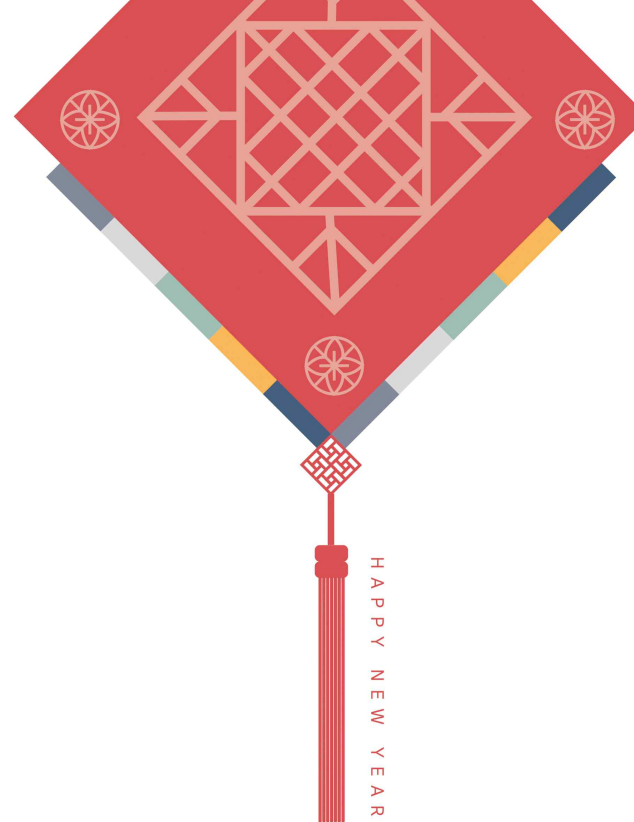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찬송가 370장

1.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탄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2.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3.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4.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 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 후렴.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사철에 봄바람 불어 잇고 찬송가 559장

1. 사철에 봄바람 불어 잇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2.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설움도 같이하니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3.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상에 둘러서 먹고마셔 여기가 우리의 천국이라
- 후렴.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 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2023 설 가정예배 순서지

| 행복하고 복된 설날 되세요 |





예배순서

우리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영광 진리로 예배드립니다

신앙고백 다 같 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 송 370(통455)장 다 같 이

기 도 말 은 이

하나님,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노래하는 믿음의 가정이 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노래하게 하시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게 해주십시오.
2022년에도 우리 가정을 지키시고 인도해 주신 것처럼
2023년에도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로 우리 가정을 지켜 주시고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가정 되게 하시고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 모든 말씀 우리 가정에 하나님 아버지를 선물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봉독 시편 128편 1~4절 다 같 이

말 씬 네가 복 되고 형통하리로다 다 같 이

찬 송 559(통305)장 다 같 이

주기도문 다 같 이

네가 복 되고 형통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하셨습니다. 허락하신 한 해에 감사하며,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원드립니다. 이스라엘의 명절은 우리의 명절과 달랐습니다. 우리의 명절은 농사와 수확에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반면, 이스라엘의 명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인도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관련이 깊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명절을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드리기 위하여 미리 전부터 성전에 올라갈 준비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명절을 하나님의전에서 지키기 위하여 발걸음을 성전으로 옮기면서 불렀던 찬양의 노래의 말씀입니다.

지금 이 노래를 부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찬양의 가사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길을 걷고 있습니다. 즉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늘 예배의 자리와 찬양의 자리가 그들의 삶에 펼쳐져 있는 길을 걷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리로 부름받았기에, 우리의 삶에 펼쳐져 있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길, 여호와를 경외하고 사랑하기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인도하시는 인생길을 걸어가는 삶입니다. 그리고 이 길에는 오직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와 축복이 있습니다.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수고로움은 모든 인생에게 허락된 것이나, 세상은 수고로움과 반비례하는 삶을 살고자 합니다. 즉 수고로움을 덜고 얻는 것은 더하는 삶을 원하지요. 그래서 더 나은 직장과 삶을 동경하며 바라며 살아갑니다. 이는 곧 세상이 인생의 수고로움에 대하여 온전하게 되갚아주는 세상이 아님을 반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손이 수고한대로 먹을 것이라’ 말씀하심은 축복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으로 생각하면 우리의 손이 수고하지 않아도 먹을 것을 풍성히 누림이 축복이겠으나,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의 수고로움이 헛되지 않음을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먹고 누리는 것에 방점을 두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수고함에 방점을 두십니다. 즉 우리가 수고한 것이 결코 헛되지 않고 우리의 땀방울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길에서의 하나님을 위한 수고와 노력이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얼마나 소중한 제물과 헌물이 되는지를 축복하시며 말씀하십니다. 새로운 한 해 우리의 삶에 어떤 수고로움의 삶이 펼쳐질지 기대하시며, 하나님을 위하여 수고의 시간과 노력을 기꺼이 기쁨으로 드리심으로 하나님께서 펼쳐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감사함으로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약속하신 두 번째의 축복은 바로 관계의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의 배우자와 자녀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의 관계에서 세워지고 허락되었는지를 상기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배우자는 결실한 포도나무입니다. 포도는 이스라엘에서 아주 소중한 열매입니다. 이 귀중한 포도나무가 풍성히 결실하였음이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돕는 배필인 나의 배우자가 결실한 포도나무와 같이 우리의 소중한 존재가 되어 우리의 갈급함을 채우고 우리의 힘과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허락하신 우리의 자녀 역시 어린 감람나무와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감람나무는 올리브 나무로서 어느 곳에 심어도 잘 자라는 나무입니다. 그리고 올리브 기름은 상처에 발라 치료제로 사용하였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녀가 어느 곳에 심어도 잘 자라는 감람나무처럼 자라나서 결실하며, 결실한 열매로 사람들의 아픔과 상처를 치료하고 회복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도구로 성장하고 사용케 되는 은혜와 축복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허락하시는 축복으로 약속하십니다.

이 모든 축복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인생에게 허락하십니다. 새로운 한 해, 우리 모든 가족이 믿음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새해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기도합니다.